UIT Report Vol. 15. No. 2. pp. 419~428. 1984 연구논문집 제15권 제 2 호 pp. 419~428. 1984

주거욕구를 결정하는 가족속성 분석연구

김 선 중
가 정 관 리 학 과
(1984. 4. 30 접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속성에 관한 조사·분석이다. 가족원의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주기 단계별로 주거욕구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를 위한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정상부부가정(핵가족)에서부터 독신가정, 대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 등 가족수와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가족형태를 갖고 있다. 더우기 요즘들어 직업의 변화로 인한 사회계층의 변화 등은 생활양식이 변화를 주어 그에 따른 주거욕구 역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욕구를 결정하는 4가지 가족속성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문헌을 고찰하였다. 4가지 가족속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가족수와 가족구성
(2) 가족원의 직업현황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양식
(4) 가족생활주기

A Study on the Selected Family Attributes Influencing Housing Needs

Kim, Sun-Joong
Dept. of Home Management
(Received April 30, 1984)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amily attributes relevant to housing needs in Korea.

In the systematic approach, the occupant's satisfaction with his dwelling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key question of whether the dwelling unit meets his needs. First of all, one may state that the basic needs are a function of four key f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such groups of attribttes and their effects upon housing needs would be discussed. They are; (1) variations in the size and composition of families or households, (2) the employment patterns of family members, (3) differing lifestyles resulting from family's socioeconomic status, and (4) the stage in the family life span.

I. 서 론

앞으로 인류가 당면할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인 주택문제는,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인한 가구수의 증가와 주택의 양적·질적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의 생활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

욕구는 양적수준 뿐만 아니라 질적수준에 있어서도 더욱 더 고도화되어가고 있다.(1)

따라서 주거의 양적인 확대와 아울러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력과정에서 거주자의 속성 중 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주거의 설계나 공간특성면에서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이 국민의 질적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예비거주자의 주거관 내지 주거욕구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욕구는 가족의 인구학적 속성('가정속성'으로 줄여 쓴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2) 이에 대한 조사분석의 필요가 있다.

주택은 거주자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족원으로 하여금 적응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주거조건이 향상되면 가족원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Reimer(3)는 거주면적과 가족수와의 관계인 거주밀도는 주거만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아동의 지능지수와 거주밀도와의 관련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공간계획에서 거주자의 적정면적에 대한 욕구를 고려해야 됨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가족원의 직업은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정의 속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주거에 대한 욕구 차원과 실내에서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공간은 사용자의 지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여 독립성과 개인생활을 누린다. 자녀수와 가족생활주기 역시 적정면적, 필요한 방 수, 그리고 시설 설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거주욕구에 대한 연구는 이같은 가족속성을 인지하여 주거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 연구목적

대부분의 주거욕구연구에서 가정의 인구학적 변인은 분석대상이 되지 못하고 독립변수로서만 이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주거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속성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다.

2) 주거만족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로서 주거욕구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가족속성을 조사한다.

그럼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주택개선과 공급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주거욕구 연구의 체계적인 접근에서 거주자의 주거욕구에 대한 기준척도결정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즉 주거욕구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거주자의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주자 개개인의 모든 특성을 알아보기는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의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그들의 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속성 중 인구학적 변인을 다음의 4가지로 국한하여 주거만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만을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가족수와 가족구성
2) 가족원의 직업현황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양식
4) 가족생활주기

Ⅱ. 가족과 주거욕구

1. 가족의 정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선 가족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 집단이지만 국가, 지역, 문화, 민족간에 다른 다양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도 종교, 계급, 그리고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가족의 정의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로 맺어지며 단일가구(Single household)을 형성하는 집단'(4)이라는 것이 대표적 정의라 하겠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공동체적 상호유

(1) 한국산업개발연구소, 長期住宅政策樹立調査研究,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74. 12. p.3.
(2) Dan Seon, 'Habitability-occupant's needs and dwelling satisfaction,' *Ekistics* 275, 1979. 3—4. p. 130.
(3) 정성자, '주거선택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79. 2.
(4) Ernest W.B., and Harvey j.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Y., 1945. p.7.

대와 정서적 융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공동생활의 단위로서 共住集團(coresidential group)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G.P. Murdock[6]은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 특색이 있으며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활동으로 특징지어진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성관계를 인정받은 남녀와 그들의 친자녀나 양자로 구성된 집단을 일컬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정의로는 연구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더우기 가족을 너무 협소한 뜻으로 정의내리면 그 정의에서 이탈되는 수많은 가족을 비정상, 또는 문제현상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해 광의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가족의 정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대량적 통계조사에 의하여 연구하는 경우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조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식구라는 낱말과 일치하는 개념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단위인 가구의 개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하면 "가구라 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며 독신으로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 또한 1970, '75년 주택센서스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家口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된다."라고 정의하고 "보통가구란 가구주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가구로서 家口主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가구, 家口主 및 그 가족과 친척 또는 그 밖의 사람(하숙생, 동거인, 가정부, 점원 등)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 혼자 살림하는 단독가구 등을 말한다. 준가구는 보통가구 이외에 기숙사, 병원, 종교단체 등의 기숙시설과 고아원, 양노원 등의 일정한 거처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1980년 주택센서스에서는 가구에 대한 정의는 이전과 같으나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일반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모여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집단가구는 통상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기숙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와 6인 이상이 동일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최재석[8]의 서울시 가족조사에 의하면 가족 전원이 동일가구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일가구 포함가족(一家口 包含家族)과 한 가족원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가구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가구의 비가족원이 되어 있는 두가구 분속가족(二家口 分屬家族)으로 구분하였다.

2. 주거욕구를 결정하는 가족속성

주택의 질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이 아니며 거주자의 욕구 또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즉 경제적, 정책적, 환경적, 심리적, 물리적, 그리고 거주자의 가족속성 등 많은 요인들이 주거욕구에 영향을 미친다.[9] 그러므로 주거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

거주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주거가 거주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Dan Seon(1979)[10]은 거주자의 욕구를 거주자의 생활주기단계(Stage of occupant's life cycle)와 거주자의 생활양식(the occupant's life style)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표 1〉은 생활주기에 따른 거주자의 주거욕구를 나타낸 것이다.

Gross, Crandall, Knoll[11]은 이 외에 가족수와

(6) G.P. Murdock, *Social Structure*, Macmillan, 1949, p.1.
"A social group characterized by common residence, economic cooperation, and reproduction. It includes adults of both sexes, at least two of whom maintain a socially approved sexual relationship, and one or more children, own or adopted, of the sexually cohabiting adults."
(7) 家口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1033호의 규정 즉 「住居와 家計를 같이 하는 者」나 「독신으로 住居를 가지고 단독생활을 영위하는 者」를 家口로 간주하였다.
(8)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서울, 1982. p.30.
(9)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N.J. 1969. p.5.
(10) Dan Seon, op. cit., P.130.
(11) Gross, Crandall,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Appleton Century-Craft. pp.45~74.

〈표 1〉 단계별 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요구의 변화

생 활 주 기	주 거 요 구 사 항
제 1 주기(형성기)	작은 아파트 임대, 수입증가로 인해 큰 아파트를 임대, 도시 중심을 원함.
제 2 주기(확장기)	공간이 많이 요구되므로 공간요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 교외 단독주택을 선호.
제 3 주기(수축기)	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질적인 면에 더욱 치중
제 4 주기(해체기)	자기집 소유를 포기하고 과부, 홀아비인 경우에는 혼자서 작은 집에 옮겨 살거나 자식과 동거, 질적인 면에 치중.
Single-headed 가 정	아이들을 위한 공간요구, 부부보다 수입이 적으므로 유지비를 줄이고자 함.

가구구성, 가족원의 직업 또한 주거욕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주택내에 거주하는 가족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밀현상은 사망율과도 관계되며 가족원으로 하여금 긴장상태를 유발시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어 가족원의 이탈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족수에 적합한 적정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Morris와 Winter[12]는 가족구성, 나이, 성별이 주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의 변화는 공간요구에 변화를 가져와 젊은층의 가정과 노인기 가정은 중심지를 벗어난 교외지역을 원하는 반면 독신자들은 중심지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이는 김은덕[13]이 좋은 나무와 넓은 잔디가 있는 주택 및 가로막힌 골목과 같은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의 위치를 추구하는 비중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은 것이다.

Ⅲ. 가족속성분석

1. 가족수와 가족구성

1) 가 족 수

가족구성은 구성원들의 수, 나이, 성별, 가족관계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같은 가족구성은 주거욕구를 추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변화와 현재의 추세를 알아봄은 앞으로 주거의 질을 높인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수, 나이, 가족관계 등이 가족개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주거욕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가족수는, 6.25동란이 종식된 후 1955년에서 1960년에 걸친 다출산의 영향으로 년평균 출산율이 3.0% 수준으로 상승되었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산아조절정책으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2.0% 선으로 감소하여 1975년에는 5.0명에서 1980년의 4.7명으로 줄어 평균 자녀 2.7명 선으로 감소된 것이다. (1985년도에는 4.4인으로 추정)[14]

그렇다고 가족수가 많았던 과거보다 현재의 적정주거면적이 좁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차 스가족을 이루며 노인가구나 독신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거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1인 가구나 결손가족의 증가로 인한 주거욕구의 또 다른 변수로 결혼율의 변화를 제시하기도 한다.[1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폭넓게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스러이 결혼율이 감소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16] 이것은 1975년 국세조사자료에서 35~39세층 여성들의 99%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의 집념은 지금도 보편적 현상임을 증명해 주었다.

2) 가족구성

적은 수의 자녀와 함께 핵가족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1960년대 426만 가구이었

(12) Earl W. Morris, Mary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 Sons Inc. N.Y. 1978. pp.43~64.
(13) 김은덕,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주부의 관심도와 만족도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가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12.
(14) 제 5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인구부문계획(안), 1981. 4.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2.
(15) Gross, Crandall, Knoll, op. cit., p.47.
(16) 이홍탁, '인구현황과 장래전망',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1983. p.149.

던 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 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17] 전국의 가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에 665만 가구에서 1980년에는 거의 800만 가구로 증가하여 이 기간동안 약 20%의 증가를 나타냈다.(1985년도에는 약 934만 가구로 추정) 실제로 1975년에 전국에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447,000가구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1980년에는 658,000가구로서 47.2%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3세대 가구는 2.7%의 증가만을 보였을 뿐이다. 또한 전형적인 핵가족의 형태인 2세대 가구는 같은 기간동안 4,580,000가구에서 5,457,000가구로 19.1%의 증가를 나타내 앞으로 핵가족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 중 중요한 1가구 1주택이라는 양적공급을 위해서는 고층화, 집단화 뿐만 아니라 다세대거주단독주택, 불량주거지의 재개발까지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18]

2. 가족원의 직업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가족자원으로서 주거욕구를 결정하는, 남편과 주부의 직업종류와 직업구조의 변화이다.

앞서 다룬 가족수나 가족구성의 변화는 남편과 주부의 역할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하여 온 급속한 경제발전과 지속적인 도시화의 과정은 직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최근 남녀의 직업현황을 보면 1970년에 남자 62.3%, 여성 37.7%이었고 1981년에는 남성 61.6%, 여성 38.4%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직업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일반적 변동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사회변동의 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직업군은 서서히 소멸되어가지만 이와는 반대로 전자 및 컴퓨터관계의 종사자들은 점차 그 수가 증가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직업군 전체가 사회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 이동을 하기도 한다.

이같이 구체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경제기획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업구조변화의 큰 줄기만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농업종사자 감소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감소된 농업인구가 대부분 도시인구로 유입되어 도시주택문제에 큰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거욕구 연구에서는 가장의 직업만을 조사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정하고 이를 주거욕구와 관련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한 자녀 내지 두명 이하의 자녀만을 둔 후에 단산을 하는 경우 30세 이전에 모두가 단산을 하게 되고[20] 막내가 5세 이상이 되는 32~33세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부인들이 남은 시간을

〈표 2〉 직업별 취업자 분포 추이(1960~1980)

(%)

직업군 \ 센서스 년도	1960	1966	1970	1975	1980
전문·기술직 종사자	2.4	2.8	3.2	3.3	4.6
행정·관리직 종사자	1.3	0.9	0.9	0.8	1.0
사무직 종사자	2.6	4.3	5.8	6.7	9.5
판매 종사자	8.3	10.7	10.1	10.4	12.1
서어비스직 종사자	6.0	5.3	6.7	6.4	7.0
생산직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단순노무자	13.2	19.2	21.7	22.8	28.2
농업 및 기타 1차산업 종사자	65.4	56.8	50.7	48.8	37.6
기타(분류 불능자 포함)	0.8	0.0	0.9	0.8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센서스보고', 1960~1980.

(1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제 2권, 1980. p.439.
(18) KAIST 에서 1979년에 행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당 거주가구는 약 1.7가구라고 한다.
(19)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2. pp.183—184.
(20) 이홍탁, '초혼연령과 출산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8. p.51.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30세가 되기 이전에 모두 단산을 하게 되면(〈표 3〉참고)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1980년에 69.1세이므로 사망시까지 39년의 장여시간을 갖게 되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연령을 50세로 가정하더라도 20여년이란 경제활동 가능시간이 남게 된다. 이같은 장시간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전체로 보아서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신들도 그 기간을 그대로 허비하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난 몇년 동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력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부인들이 30세를 가장 이상적인 단산연령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가설명을 할 수 있다.(21)

〈표 3〉 초혼연령의 변동양상

(세)

연 도	남	여
1960	26.4	22.6
1965	26.7	22.8
1970	27.1	23.2
1975	27.4	23.6
1980	27.3	24.1

자료출처 : 경제기획원,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확인결과(요약), p.8. (1982. 12)

따라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일터와 집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련사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각 직업분야에 여성들이 참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겸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유아원이나 탁아소에 맡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직업과 자녀양육을 양립시키려하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제도를 요구하고 있다.(22) 이것은 핵가족단위를 유지하면서 소자녀관(小子女觀)으로 인해 가족수가 점차 감소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다.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양식

1)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란 용어는 사회과학 문헌에서 여러가지로 정의되고는 있으나 각기 부(富), 영향력, 위신, 삶의 기회의 정도로 구분한다. 이같은 계층화의 가장 중요한 면은 각 집단의 생활양식일 것이다. 매우 극소수의 최상류층으로부터 영세하류층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수많은 생활양식이 있는 것이다.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 계층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동에 의해 행복, 자아실현의 기회, 자기완성의 기회 등이 계층분석을 위한 지표로서 제시될 수 있는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계층분석의 지표로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표현하여야 한다.(23)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를 지적하자면 재산(45.7%), 교육정도(31.4%), 직업(13.9%), 수입(3.9%)의 순으로 그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다.(24) 그러나 지위지표로서의 모든 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성질의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학력이 높으면 많은 수입이 따르는 직업을 갖기 쉬울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단일지위지표로는 「직업」이라는데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다.(25) 그러나 주거욕구연구에서는 단일지표의 모호성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McGurie, Carson, George White가 결정한 가장의 교육, 직업, 수입으로서 사회지위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26) 왜냐하면 직업으로 인

(21) 이홍탁, 앞의 책, 1983. p.143.
(22) Urie Bronfenbrenner, "The Changing Soviet Family." p.140 in The Nuclear Family in Crisis; Harper& Row (1972). 이효재의 「가족과 사회」에서 재인용.
(23) 김채윤, '한국사회계층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81. p.103. 그는 가구주의 직업, 재산, 수입, 학력, 가풍, 주택소유여부 및 종류, 주거지역, 친구관계, 사회단체가입, 취미생활, 생활양식 등을 변수로 하여 점수에 따라 상·중·하 또는 상의 상, 상의 중 같은 식으로 5개, 7개 등으로 다양한 분류범주를 규정하였다. 즉 분류자체에 상당한 임의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뜻을 인정하였다.
(24) 김성국, '계층구조와 의식구조', 「월간조선」, 1983. 11월호, p.159.
(25) 이상백·김채윤, 한국사회계층연구, pp.63—64.
(26) Mcgurie, Carson, George white, "Factors Involved the Selection of Furnishing." Penn. State Univ. 1967. pp. 136—141.

해 수입이 거의 결정되고 수입은 좋은 주거생활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수입이 매우 적은 계층일지라도 기본적인 주거수준(채광, 환기, 위생시설 등)까지는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이 중시되는 것 역시 그것이 좋은 직업의 획득수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하나의 사회화 과정으로 본다면 그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계층모형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는 홍두승[27]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의 약 7할이 속한다고 의식하는 중산층은 다음과 같은 직업군들로 이루어져 있다.

2) 생활양식

사회계층별 생활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의 특성으로 인한 생활양식은 주거에 대한 기본욕구를 결정한다. 생활양식에 따른 욕구가 다양하지만 Maslow의 욕구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욕구의 형태학적 개념을 세울 수 있다.[29]

첫째, 은신처와 안전에 대한 욕구

둘째, 물리적 욕구

세째, 사회적 욕구

네째, 심미적 욕구

즉 주거욕구에도 차원이 있어 생활양식이 발전해감에 따라 낮은 욕구에서 높은 차원의 욕구가 만족되기를 원한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주거욕구는 거처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하위 욕구단계로 볼 수 있다. 거처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면 심리적이든 실제이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자 한다. 그것이 충족되면 안락함과 편리함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안락과 편리함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주택은 거주자의 사회화의 도구로서 자기표현의 장소가 된다. 이러한 모든 욕구들이 만족되어졌을 때 각자의 주택과 이웃 주택의 심미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 가족내에서 계층이 상승이동할수록 좀 더 높은 차원의 주거욕구가 형성됨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있는 이웃관계는 생활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Gutman[30]은 노동계층의 주부들은 여러사회계층이 혼합된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중류층에 대한 사교적 기술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동계층거주자들이 중류층의 이웃과 친구가 되기 보다는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계층간에 나타나는 유사한 가치관과 공통된 감정이 주거선택, 이웃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계층간에 서로 혼합되지 않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이 필요하다.

4. 가족생활주기

거주자의 주거관 내지 주택의식은 가족주기(Fa-

〈표 4〉 한국의 계층모형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	부 문 간 의 구 분		
	조 직 부 문	자 영 업 부 문	농 업 부 문
상	중상계층[3] 1.6%	상 류 계 층 0.1%	
중	신중간계층[1] 10.1%	구중간계층[2] 15.7%	독립자영농계층 25.9%
하	근 로 계 층 18.9%	도시하류계층 6.4%	농촌 하류 계층 14.8%

(1) 신중간계층 : 하위전문직(의료보조원, 테크니션, 교사 등), 사무원, 감독자, 판매감독자, 서비스업 감독자, 정부의 하급공무원, 일반회사의 사무직 사원, 판매종사자(피고용), 경찰관 및 보안종사자
(2) 구중간계층 : 도·산매업자, 요식·숙박업자, 개인택시운전사, 라디오, TV 수리공, 양복공, 이발사, 목수(모두 자영업 주인에만 해당).
(3) 중상계층[28] : 변호사,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 회계사, 일반회사의 고급 관리직 사원,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

(27) 홍두승,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월간조선」, 1983. 11.
(28) 전문기술직 종사자를 대체로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홍두승은 이 계층을 분류상의 필요에 따라 상류층에, 때로는 중간계층에 포함시키고 있다.
(29) Dan Seon, op. cit. p.130.
(30) R. Gutman, "Population Mobility in the American Middle Class," *The Urban Condition*, Leonard Duhl, N. Y.: Basic Books, 1963, pp.173—174.

mily Span) 또는 생활주기(Life Span)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전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후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31] 즉 가족생활주기의 발전에 따라 가족원의 수, 연령 등의 변동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경제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가족간의 권력이나 역할의 구조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32]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동에 따라 주택에서 얻고자 하는 기능이나 선호도 달라질 것이다.

1) 가족생활주기 구분

1960년대부터 가족주기의 연구가 이론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 Duvall[33]은 자녀들의 연령, 교육단계, 그리고 집을 떠나는 요인, 그리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단계를 세밀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 혼인한 부부(자녀 없는 단계)
2단계 : 자녀출산단계
3단계 : 학령전 아동이 있는 단계
4단계 : 학령아동이 있는 단계
5단계 : 10대 자녀를 둔 단계
6단계 : 팽창기(자녀들이 집 떠나는 단계)
7단계 : 중년부부만이 남는 단계로 정년퇴직하기까지
8단계 : 정년퇴직에서 부부사망까지

사실상 주거생활에서 제기되는 욕구와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러한 단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주거욕구는 각 주기별 단계와의 관련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되며 이해된다.

Paul Glick[34]은 가족주기를 주부의 연령을 기준으로 초혼연령, 첫아이 출산, 막내아이 탄산, 자녀들 혼인 및 배우자 사망 등의 요인으로 변화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기분석은 우리나라 가족주기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쳐 왔다.

2) 우리나라의 가족주기 모형

우리나라의 가족을 우선 핵가족으로 전제하여 형성기를 혼인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첫아이 출산을 가족의 확장기, 막내아이 출산, 즉 탄산기를 확장의 완결단계로, 첫아이가 혼인으로 또는 자립해서 집을 떠나는 시기를 가족의 수축기, 막내아이가 혼인해서 떠나는 것을 완전 수축기로 본다. (표 5 참고) 가족이 해체되는 단계는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하여 나머지 배우자가 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부부의 혼인으로 시작된 가족의 주기는 완결된 것이다.

〈표 5〉 핵가족 주기의 기본모형

1. 형 성 기	혼 인
2. 확 장 기	첫아이 출산
3. 완전확장기	막내아이 출산
4. 수 축 기	첫아이 집 떠남
5. 완전수축기	막내 집 떠남
6. 해 체 기	부부 중 1명 사망

자료출처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WFS 자료를 중심으로', 1982, pp. 52—53.

그러나 한국가족은 직계가족으로서 확대가족이므로 부모의 사망이 가족의 해체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직계가족주기 모형을 〈표 6〉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6〉 3세대 직계가족주기의 기본모형

형 성 기	혼 인
제 1 확장기	첫아이 출산
제 2 확장기	막내아이 출산
제 3 확장기	장남 혼인
최대확장기	장손 출산

자료출처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앞의 책, p. 54.

그러나 직계가족의 주기는 종가의 경우 그 형성이 조상에서 시작된 것이고 본 모형은 차남 이하의 경우이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분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선중, 임창복[35]은 가족주기를 주택의 필요량수에 따라 결혼여부, 장남 혹은 장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단계 : 독신기
2단계 : 가족형성기(장남, 혹은 장녀의 나이 7세 이하)
3단계 : 확대초기(장남, 장녀의 나이 8~12세)

(31) Martin Meyerson, Barbara Terrett, William L.C. Wheaton, ***Housing, People and Cities***, McGraw Hill Book Co. Inc., N.Y. 1962, p. 93.
(32) 최재석, 앞의 책, p. 87.
(33) Evelyn M. Duvall,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57, pp. 116—117.
(34) Paul C. Glick, ***Sociology: The Progress of a Decade***, p. 256. 이효재의 「가족과 사회」에서 재인용.
(35) 김선중, 임창복 外,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KAIST 1981, p. 88.

4단계 : 확대중기(장남, 혹은 장녀의 나이 13~17세)

5단계 : 확대후기(장남, 혹은 장녀의 나이 18~22세)

6단계 : 축소기(장남, 혹은 장녀 결혼)

독신기와 자녀의 나이가 어린 가족형성기에 최소 1실취침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부부를 제외한 자녀들에게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독립된 방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을 기준으로 적정 방수를 〈표 7〉과 같이 제시한다.

이밖에 다른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변한다. Downer의 2명[36]의 연구에서 생활주기별 공간요구사항 제 1주기 가정에서는 세탁실, 욕실 등이고 제 2주기와 제 3주기 가정에서는 가족실, 침실, 취미실, 수납장소이며 제 4주기 가정에서는 공동생활공간인 거실, 식당, 부엌시설 등이 특히 요구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표 7〉 적 정 방 수

가 족 구 성 원	점 유 실 수
독 신	독립된 1室
부 부	1室 동거
조모, 조부	1室 동거
유아(幼兒)	부모와 동거
7~12세의 학동(이성)	독립된 1室
중·고생(동성)	2人까지 1室 동거
성인(19세 이상)	독립된 1室

자료출처 : 김일진, 조성기, 「주거학」, 동명사, 1976.

Ⅳ. 맺 는 말

가족속성에 관련된 여러 요인 중에서 주거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특히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라 생각되는 가족구성, 생활주기, 사회계층(직업까지 고려된 사회경제적 지위)이라 할 수 있다.

가족구성에 따른 주거욕구변화, 즉 최근 정상가정이 아닌 혼자 살아가는 독신자 가정, 노인가정, 이혼으로 생긴 가정 등 새로운 형태에 가정에 알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계층에 따른 주거욕구는 지위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상징적 의미가 달라짐을 뜻한다. 같은 계층내에서 이루어지는 공통된 가치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주거선택, 주거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또한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되고 요구되는 주거공간, 즉 각 생활주기에 맞는 생활공간으로 제획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생활주기가 2주기·3주기인 가정에서는 주로 개인공간을 중시해야 되는 반면 4주기인 가정에서는 공동생활공간이 중요시 되면서 주거이외의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욕구에 대한 결정사항은 인구학적 변인인 여러가지 가족속성변인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제 2 권, 1980.

김병섭, '한국의 주거생활주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7.

김선중, '집합주거형태에 따른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주부의 반응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가정대학원, 1980. 7.

김은덕, '아파트 외부공간에 대한 주부의 관심도와 만족도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가정대학원, 1981. 2.

노동부, 「노동 통계연감」, 1982.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 6 편, 1983. 8.

이 훈, '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75.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서울, 1983.

이홍탁, '초혼연령과 출산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8.

임창복·김선중 등,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81.

정성자, '주거선택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원, 1979,

「월간조선」, 1983. 11.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서울, 1982.

추영수, '한국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축」, 제 28 권 116호, 대한건축학회, 1984. 1,

(36) D. B. Downen "Physical Space & Living Pattern Relationships," *Journal of Home Economics*, (June 1968) pp. 429—432.

pp. 36~4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론」, 민음사, 서울, 1981.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1983.

한국산업개발연구소, '장기주택 정책수립 조사 연구', 1974. 12.

Choi, Syn-duk, 'Social Change and the Korean Family' 「KOREA JOURNAL」 1975, pp. 4~13.

Yoon, Bok-Cha,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Yonsei Univ. Seoul, 1983. 9.

Burgess, E. W., and Harvey, J.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 Y., 1945.

Dan Seon, 'Habitability-Occupant's needs and dwelling satisfaction' *Ekistics* 275, 1979. 3—4. pp. 129—134.

Davis, E. Joseph, ***Fundamentals of Housing Study***, Columbia Univ., N. Y., 1972.

Dowmen, B. D., 'Physical Space & Living Pattern Retationship,' *Jr. of Home Economics*, 1968. 6, pp. 429—432.

Duvall, M. E. ***Family Development***, J. B. Lippincott, Philadelphia, 1957.

Gross, Crandall,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Appleton Century Craft.

Gutman, R., 'Population Mobility in the American Middle Class', ***The Urban Condition***, Leonard Duhl, Basic Books, N. Y., 1963.

Meyerson, M., Terrett, B., Wheaton, L. C. W., ***Housing, People and Cities***, McGraw Hill Book Co. Inc., N. Y., 1962.

Morris, W. E., Winter, M.,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r. of Marriage and Family*, 1975.

Morris, W. E., Winter, M.,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and Sons Inc., N. Y., 1978.

Murdock, G. P., ***Social Structure***, Macmillan, N. Y., 1949.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N. J., 1969.

Reardor, C. L. and Boles, E. W., 'Housing Opportunity, Quality and Satisfaction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A Comparative Study,' *Jr. of Housing and Society*, Vol. 5, No. 4, pp. 60—63.

White, J. Betty, 'The Future of the American Housing Dream,' *Jr. of Home Economics*, 1983, pp. 21—28.